

# 삼성전자, OLED TV 2대 분실

## <IFA 2012>로 운송 중 사라져 ... 기술유출이면 수조원대 손실

독일 베를린 <IFA 2012>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의 OLED TV 2대가 운송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TV로, 일부에서는 거액을 들여 개발한 첨단 OLED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IFA 2012> 전시를 위해 한국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운송했던 OLED TV 2대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사실을 알게 된 삼성전자는 독일과 국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8월21일 수원사업장에서 포장했으며 8월28일 전시장에 도착했다”며 “도착한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대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사라진 OLED TV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 평판 디스플레이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최첨단 TV로 <IFA 2012>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은 경찰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최첨단 기술을 빼내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만일 첨단 기술을 노린 절도라면 수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1년 4월 미국 국제방송장비전시회(NAB)를 앞두고 63인치 PDP TV를 도난당하는 등 과거에도 유사한 일을 겪은 바 있어 전시회에 출품되는 제품에 대해 특별히 보험에 가입하는 등 도난에 만전을 기했다.

도난당한 OLED TV는 아직 시판되지 않은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4>